

# 요르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2. 5.

I. 일반개황 .....	1
II. 경제동향 .....	2
III. 정치·사회동향 .....	7
IV. 국제신인도 .....	10
V. 종합의견 .....	13

## I. 일반개황

면적	89천 km <sup>2</sup>	GDP	295억 달러(2011년)
인구	6.59백만 명(2011년)	1인당 GDP	4,473달러(2011년)
정치체제	입헌군주제	통화단위	Jordanian Dinar(JD)
대외정책	친미노선	환율(달러당)	0.71(2011년)

- 요르단은 이스라엘, 시리아, 사우디아라비아와 접경하면서 중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약 1/2 규모와 66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.
- 석유·가스의 매장량이 미미하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나,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금융, 부동산, 운송, 통신 등 서비스산업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.
- 입헌군주국으로서 압둘라(Abdullah II Ibn Al-Hussein)국왕이 1999년 이래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. 2011년 초에 정치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국왕은 국민대화위원회를 신설해 정치, 경제 개혁 논의를 시작하고 총리 및 내각 임명권 포기를 선언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정국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.
-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전통적 중립외교노선에서 친미노선으로 외교정책을 변경하여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 중동 진출의 교두보 및 이라크,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들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
## II. 경제동향

### 1. 국내경제

#### □ 경제성장세 둔화

- 2007~08년에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, 세계 금융 위기 여파에 따른 관광 등 서비스 산업 부문의 위축에도 불구하고, 꾸준한 해외 자본 유입, 주력 생산품인 가성칼리\* 및 인광석 생산 호조 등에 힘입어 5~6% 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함.

\* 수산화칼륨(KOH)의 관용명으로 주로 의약품, 액체비누 등의 원료로 쓰임.

- 그러나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대외원조 및 FDI 유입이 감소하고, 관광 및 금융 서비스 등 서비스 부문의 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이 2.3%에 그쳤음.
- 2010년에 세계 경기 회복과 더불어 수출 증가로 경제성장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3.1%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중동민주화 시위로 인한 관광객 및 외국인투자 감소로 전년 대비 하락한 2.6%로 추정됨.

#### □ 재정수지 적자기조

- 재정수지는 정부의 긴축재정 및 세수 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, 대규모 공적 부채와 유가보조금을 포함한 정부보조금 및 국방, 치안 부문 지출 등으로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, 2007~08년 GDP 대비 적자규모는 6~7% 대를 기록하였음.
- 2009년에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일반관매세 및 법인세 수입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GDP 대비 11.1%로 확대되었음. 2010년에 재정지출 감소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7% 대로 소폭 개선되었다가 2011년에 정치 개혁으로 재정지출 억제 정책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다시 12.4%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.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07	2008	2009	2010	2011 <sup>e</sup>
경제성장률	6.9	5.8	2.3	3.1	2.6
재정수지/GDP	-7.9	-6.6	-11.1	-7.4	-12.4
소비자물가상승률	5.4	14.9	-0.7	5.0	4.4

자료: IMF, EIU.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근 연 4~5% 수준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년에 국제유가 상승 및 정부의 유가 보조금 축소, 2003년 이라크 전쟁 발발 이후 3년 간 최대 100만 명의 이라크 난민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, 달러화 약세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5% 대를 기록하였음.
- 2008년에는 국제 식료품 가격 급등, 정부의 유가 보조금 축소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사상 최고치인 14.9%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는 국제 원유 및 식료품 가격의 하락으로 -0.7%를 기록하였음.
- 2010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으로 국제원유 및 상품 가격의 상승, 미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%를 기록하였으며, 2011년도에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4.4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서비스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

- 요르단은 비산유국이고 부존자원이 빈약하나, 중동 지역의 교통 요충지라는 지형적 이점을 활용하여 금융 및 부동산, 정부서비스, 운송 중심의 서비스업이 크게 발달하여 GDP의 약 65%를 차지하고 있음.

- 산업별 GDP 구성: 서비스업(65.2%), 제조업(30.3%), 농업(4.4%)

- 여타 산업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, 제조업이 전체 GDP의 30.3%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섬유, 비료 및 화학원료 등 원자재 산업 위주이며, 생활용품과 산업용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.

## 나. 성장 잠재력

### □ 지정학적 요충지로 지역 내 물류 허브로 성장 가능

- 요르단은 홍해를 접하고 있는 아카바(Aqaba)항을 기점으로 시리아, 이라크, 팔레스타인 등을 잇는 서부 중동지역 물류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- 최근에는 약 20억 달러 규모의 아카바 신항 및 3개 대규모터미널(일반 화물 및 자동차용 터미널, 곡물 터미널, 여객선 전용 터미널) 건설 프로젝트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민간협력(Public-Private Partnership: PPP)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중동의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.

## 다. 정책 성과

### □ 지속적인 민영화 정책 추진

- IMF는 비대한 공공분야와 막대한 재정적자를 요르단 경제구조의 취약점으로 지적해 왔음. 이에 압둘라 국왕은 1999년 취임 이후 재정수입 증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으로 국영기업 민영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며, 전력, 석유, 운송 등 부문별로 점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.
- 주요 성과로는 2003년 Arab Potash Company(국영 칼륨개발공사)의 매각(지분 52%), 2006년 Jordan Phosphate Mines Company(인광개발공사)의 매각(지분 37%), 2007년 Royal Jordanian(국영항공사)의 민영화 등을 들 수 있음.
- 2008년에는 Jordan Petroleum Refinery Company(JPRG)의 민영화 작업을 착수한 데 이어, 의료 및 폐기물 처리 사업 등에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해 옴.

## □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

- 압둘라 국왕은 자본 및 기술 부족 타개를 위해 투자유치를 강조하고 있으며, 2000년 WTO 가입을 시작으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(2000.10), 대미 관세면제특구(QIZ: Qualified Industrial Zone) 및 아카바경제특구(Aqaba Special Economic Zone)를 조성함으로써, 국내경제의 체질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.
- 주요 성과로는 총 10억 달러 규모의 도심 재개발 프로젝트, 암만시 내륙 물류기지 및 환상도로 건설, 총 7억 달러 규모의 주거 및 상업 단지 건설 등을 들 수 있음.
- 이같은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, 2004년 9억 달러 규모에 불과했던 외국인투자 규모가 2006년에는 사상최대치인 32억 달러까지 확대된 바 있으며, 이후에도 연 2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- 연도별 FDI : 26억 달러(2007) → 28억 달러(2008) → 24억 달러(2009) → 17억 달러(2010)

## □ 재정적자 확대 지속

- 요르단은 IMF의 권고에 따라 유가 및 식료품 보조금 축소 등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음. 그러나 대규모 공공부채와 국방에 대한 지출, 세수 감소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재정적자가 확대되어 2011년도에도 여전히 적자규모는 GDP의 12.4%를 기록하였음.

## 3. 대외거래

### □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

- 상품수지는 섬유, 가성칼리 등 주요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자 제품, 자동차 등 공산품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, 국제원유 및 식료품 가격 상승세에 따른 수입 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.
- 요르단은 원유와 밀(연간 70만 톤)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의 국제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함.

&lt;표 2&gt;

##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07	2008	2009	2010	2011 <sup>e</sup>
경 상 수 지	-2,875	-2,038	-1,126	-1,312	-2,863
경 상 수 지 / GDP	-16.9	-9.0	-4.8	-4.8	-9.7
상 품 수 지	-6,452	-7,165	-6,266	-6,650	-8,227
수 출	5,731	7,937	6,375	7,028	7,986
수 입	12,183	15,102	12,641	13,679	16,212
외 환 보 유 액	7,539	8,558	11,459	12,831	11,242
총 외 채 잔 액	8,371	6,580	6,615	7,645	7,644
총 외 채 잔 액 / GDP	49.2	29.0	28.2	27.8	25.9
D S R	5.6	25.7	15.2	4.0	4.8

자료: IMF, EIU.

- 경상수지도 2005년부터 적자기조임. 2009년에는 국제 생필품 가격이 하락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4.8%를 기록하였으며, 2010년에는 국제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경기 회복으로 GDP가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전년과 같은 4.8%를 유지하였음.
- 2011년에는 전년대비 수입증가율(18.6%)이 수출증가율(13.6%)를 크게 상회하여 상품수지 적자가 늘어나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GDP 대비 9.7%로 전년대비 대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.

- 수입 증가는 원유 수입액이 48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8.1% 증가한 영향이 큼.

## □ 외환보유액 증가, 낮은 DSR 등 외채상황은 양호

- 외환보유액은 2000년 이후 지속된 미국의 원조자금 및 대규모 FDI 유입, 해외 근로자 송금액 증가에 힘입어 비교적 꾸준히 늘어나 2011년 말에 11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.

- 또한 GDP 대비 총외채잔액의 비율이 2011년 말에 25.9%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, 최근의 낮은 DSR 수준(2011년 기준, 4.8%)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외채 상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.
- 2008년에 DSR이 25.7%로 크게 상승한 것은 파리클럽의 외채(21억 달러)를 1/4 분기에 조기상환한 데서 기인하였음.

### Ⅲ. 정치·사회동향

#### 1. 정치안정

##### □ 압둘라 국왕의 국정 운영 지속

- 요르단은 입헌군주제 국가로 1999년부터 압둘라 국왕의 통치 하에 있음.
- 압둘라 국왕은 군부 및 대다수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, 뿌리 깊은 인종주의와 이슬람 보수주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, 부패척결 및 행정 투명성 증대, 금융 개혁 등의 경제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음.
- 아울러, 정치활동 및 언론의 자유 등 개혁을 추진하여 대내외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, 국가 개혁 기조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에 National Agenda를 발표함.
- National Agenda는 선거법, 정당법, 연금법, 정부 회계 및 사법제도, 노동법 등 정치, 경제, 사회분야에 걸쳐 향후 10년 간의 국가 개혁에 관한 비전을 제시 하였음.
- 압둘라 국왕은 2009년 11월 높은 실업률과 경제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의회 해산\*과 조기 총선을 명령하고 2009년 12월 왕실과 측근인 사미르 리파이(Samir Rifai)를 신임총리로 임명하였음.

##### □ 2011년 초 반정부 시위 발생

- 2011년 1월 말부터 수도 암만(Amman)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과 실업 증가 등에 항의하며 사미르 리파이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됨.



- 국왕이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2월 1일에 총리가 사임하였으나, 국왕의 내각 임명권과 의회 해산권 등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속되었고, 이 과정에서 친정부 시위대와의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음.
- 국왕은 반정부 시위 초기인 2011년 2월 국민대화위원회를 신설해 정치·경제 개혁 논의를 시작하였으며, 같은 해 6월에는 총리 및 내각 임명권 포기를 선언하였음.
- EIU(Economist Intelligence Unit)가 발표한 2011년 민주주의지수\*에 따르면, 167개국 중 118위로서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였으며 권위주의 체제국으로 분류되고 있음.

#### □ 2012년 4월, 알 하사우네 총리 사임

- 2012년 4월 26일에 그간 민주화 개혁을 추진해온 아운 알 하사우네 총리는 선거법\* 개정 등 정치개혁을 둘러싼 왕실과의 이견으로 6개월만에 사임하였음.
- 이에 압둘라 국왕은 파예즈 타라우네(Tarawneh, Fayez) 전 총리에게 새 총리직을 제의하였음. 1998년~99년에 총리로 재임한 바 있는 타라우네를 기용하여 정치적 위기를 타개해나가려는 의도로 해석됨.
- \* 요르단 정부는 4.7 개정선거법안을 하원에 제출하였으며, 선거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선거구제 도입, 여성할당의석을 포함한 비례대표석 증설 등임.

## 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#### □ 높은 실업률

- WTO 가입, QIZ 운영 및 여타 양자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고,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실업 문제가 사회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.
- 2011년 기준 실업률은 13.1%로, 15~24세가 실업인구의 40%를 차지함.

## □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혁성과도 지지부진

-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, 구금자에 대한 학대·고문, 자의적 체포와 구금, 불투명한 조사 과정, 보안 당국의 신뢰성 부족, 사법적 과정에 대한 관여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음.
- 연금, 사회보장, 상속, 노동, 이혼, 여행의 자유, 시민권, 명예살인\* 등 여성에 대한 전통적이고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.

\* 명예살인(honor killing)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관습으로 요르단에서 발생하는 모든 살인 사건의 약 25%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됨.

## □ 토착 요르단 인들과 팔레스타인계 요르단인들 간 갈등 상존

- 요르단강 동안(East Bank)에 거주하는 토착 요르단인들은 전체 인구의 30%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, 국왕과 군부-부족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권력을 장악해 옴.
  - 왕족 일가(하쉬마)는 토착 요르단인들과 결탁하여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팔레스타인 출신 요르단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해 옴.
- 반면, 팔레스타인 출신 요르단인은 전체 인구의 약 60~70%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난민 지위에 머물고 있으며, 정치·경제적으로 차별받고 있음.
  - 팔레스타인계 요르단인들의 지지를 받아온 이슬람행동전선(IAF)은 1989년 하원 의원 선거에서 약 30%의 의석을 차지한 바 있으나 이후 의석 비중이 감소하여 2007년 의회선거에서는 5.4%에 그침.
  - 법적으로 팔레스타인계 요르단인의 하원의석 비중은 전체의 25%로 제한되고 있으며 현재 요르단 행정관 중 팔레스타인 출신은 전무함.
- 이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팔레스타인계 요르단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현 팔레스타인해방기구(PLO)를 비롯한 많은 무장조직들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
### 3. 국제 관계

#### □ 서방국가 및 주변국가 등과 원만한 관계 유지

- 압둘라 국왕은 주변 아랍국 및 미국, 영국, EU 등 주요 서방국가와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중동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각인시키고자 함.
- 요르단은 대미외교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, 미국은 요르단에 연간 약 5억 달러 (군사원조 2억 달러 포함)의 원조를 제공하여 왔음. 양국 교역은 대미관세면제 특구(QIZ)설치(1996), 자유무역(FTA)발효(2001)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.
  - 2012년에 미국은 요르단에 9억 3천만 달러의 원조 및 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하였음.
  - 요르단은 이라크전 이후 전통적 중립외교노선에서 친미노선으로 외교정책을 변경 하였는데, 팔레스타인계 주민의 반미 감정은 여전히 잠재적 불안 요소로 작용 하고 있음.
- 캐나다와의 FTA는 캐나다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. 이는 캐나다와 아랍국가 간의 최초 FTA로 요르단 내 캐나다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.
- 요르단은 아랍경제개발을 위한 쿠웨이트기금(KFAED) 원조 수혜국으로 요르단은 아즈락 고속도로 재건을 위한 2억 4천만 달러를 지원받았음.

## IV. 국제신인도

### 1. 외채상환태도

#### □ 여러 차례 리스케줄링 경험

- 요르단은 파리클럽과 1989~99년 중 5차례에 걸쳐 총 8억 달러의 채무상환연기를 하였고, 재정적자가 지속되자 2005년에 또다시 총 외채의 17%를 2007년까지 상환 연기한 바 있음.

□ 외채상환부담 감소

- 2007년 10월에 요르단 정부가 파리클럽과 총 21억 달러의 대외 부채를 11% 할 인하여 조기상환(할인된 조기상환 금액 19억 달러)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외채 상환부담이 경감되었음.
- 당시 파리클럽 회원국들에 대한 요르단의 채무는 총 외채의 60% 수준인 43.8억 달러이었음.
- 이와 같은 조기상환은 요르단의 견실한 경제성장 및 양호한 외채관리 전략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, 요르단은 2000년 이후 진행되어 온 민영화에서 발생한 수익 등으로 2008년 1분기에 채무액을 상환하였음.
- 2012년 1월 24일에 세계은행은 요르단에 대한 개발정책차관 2억 5천만 달러를 승인하였음.

2. 국제시장평가

□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수출입은행	C2 (2012.5)	C2 (2010.10)
OECD	5 (2012.3)	5 (2011.3)
S&P	BB (2011.6)	BB (2010.3)
Moody's	Ba2 (2012.2)	Ba2 (2011.2)

□ 주요 ECA의 지원 태도

- 미국 EXIM : 전액 인수 가능하나 신용한도 적용
- 영국 ECGD : 중·단기 인수 가능
- 독일 Hermes : 단기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.

### 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수립: 1962. 7. 26 (북한과는 1974. 7. 5 수교)
- 주요협정: 무역협정(1972), 문화협정(1977), 경제 및 기술협정(1977), 항공협정(1978),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(2000),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(2004), 이중과세 회피탈세방지협정(2004), 관광 협력협정(2005), 원자력협력협정(2008)
- 우리나라와의 2011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2.8% 증가하여 약 13억 달러를 기록함.
  - 수출은 자동차, 기초산업기계를 중심으로 약 12억 달러, 수입은 비금속광물을 중심으로 약 7천만 달러를 기록함.
- 최근 발전, 하수처리, 건설, 플랜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.
  - 2012년 1월에 한국전력(KEPCO)는 요르단 국영전력공사(NEPCO)가 국제입찰로 발주한 총 사업비 8억 달러 규모의 600MW급 IPP-3 디젤내연발전소의 건설·운영 사업자(Build-Own-Operate 방식)로 최종 선정되었음.
  - 2012년 2월에 롯데건설은 요르단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600MW급 디젤발전소를 5억 6천만 달러에 수주했음.

<표 4> 한·요르단 교역 규모

단위: 천 달러

구분	2009	2010	2011	주요 품목
수출	1,018,639	1,226,220	1,224,002	수송기계, 비철금속제품 등
수입	30,738	36,386	73,849	정밀화학제품, 비금속광물 등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해외직접투자 (2011년 12월 말 누계, 총투자 기준) : 16건, 1561만 달러

## V. 종합 의견

- 요르단은 석유, 가스 등의 자원이 빈약하고 제조업 기반도 취약하나, 서비스산업이 발달하였으며,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 중동 진출의 교두보 및 이라크, 이스라엘,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들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- 경제적으로는 빈약한 산업기반,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, 대외원조자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의 취약점이 있으나, 섬유수출 호조, 공공투자 증가, 해외자본 유입 등에 힘입어 최근 연 2~3% 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있음.
- 정치적으로는 2011년 초에 정치개혁 및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바 있음. 이에 압둘라 국왕은 국민대화위원회를 신설해 정치, 경제 개혁 논의를 시작하고 총리 및 내각 임명권 포기를 선언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시위가 일단락 되었음.
- 한편, 외환보유액은 미국 등 해외원조자금, 대규모 FDI 유입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26%, DSR도 4%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의 외채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조사역 박유정 (☎02-3779-5727)

E-mail : yjpark@koreaexim.go.kr